

부귀영화의 꽃 ‘화중지왕 - 모란’展

미술관 솔, 6월 29일까지 6명 작가 작품 14점 전시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미술관 솔(관장 서정만)이 5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화중지왕(花中之王) - 모란’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귀와 영화, 왕실의 품격을 상징하는 모란꽃을 한국 근현대 서양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모란은 ‘꽃 중의 왕’으로 불리며 풍성한 잎과 고운 꽃잎으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대표한다.

조선시대에는 부귀의 상징으로 결혼식 의복과 침구, 병풍 등에 모란 문양이 자주 등장했으며, 왕실에서는 궁궐 장식과 왕비·공주의 옷에도 모란이 사용되었다. 이번 전시는 이런 동양적 상징성이 서양화 기법으로 어떻게 표현됐는지 보여준다.

전시에는 총 6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김용봉(하정, 1912~1994)은 전북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근대 서양화가로, 정교한 묘사와 색채 표현이 뛰어나다.

하반영(1918~2015)은 자연과 사물의 생동감을 살리는 수채화와 유화를 주로 그렸으며, 모란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탁월하다.



‘화중지왕(花中之王) - 모란’ 전시 포스터

천철봉(1920~1984)은 강렬한 색감과 대담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알려져 있다. 그의 모란 작품은 화려함과 품격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외주(1926~2002)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화풍으로 모란의 고귀함을 세련되게 재해석했다.

박철교(1935~)는 현재까지도 활동 중인 작가로, 모란의 풍성한 꽃잎과 색채 대비를 통해 생명력을 강하게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는 이들 작가의 유화와 수채화 14점이 소개되며, 흰색 백모란의 순수함부터 강렬한 붉은 적모란까지 다양한 모습의 모란이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특히 노란 꽃잎이 꽃 중앙에서 빛나는 조화가 인상적이다.

미술관 솔 서정만 관장은 “모란은 오랜 세월 우리 삶 속에 함께하며 부귀와 번영을 상징하는 꽃이었다. 한국화뿐 아니라 서양화에서도 모란이 지닌 상징성과 아름다움이 새롭게 표현되는 모습을 관람객들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부귀영화의 길조를 그림으로 느끼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미술관 솔(063-286-0567)로 하면 된다.

미술관 솔은 목요일은 휴관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만호 기자

예술의 전당 명품 공연, 전북대서 스크린으로 만난다

전북대 중앙도서관, ‘SAC ON SCREEN’ 문화예술 영상 무료 상영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예술의 전당 우수 공연을 영상으로 상영하는 ‘예술, 스크린에 담다: SAC ON SCREEN IN JENU’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SAC ON SCREEN(삭 온 스크린)’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오페라, 발레, 연극 등 명품 공연과 전시를 4K UHD 고화질 영상과 5.1채널 입체 음향으로 제작해 현장감을 극대화한 공공 영상화 사업이다. 특히 공연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관객들에게도 고품질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8일 오후 2시,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음악회로 재구성한 ‘티에리’ 위에의 어린 왕자 공연을 시작으로 매월 1~2회 진행된다.

6월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피아노 리사이틀, 7월에는 오페라 ‘마술피리’와 연극 ‘돌아온다’, 8월 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9월 음악회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와 발레 ‘지젤’, 10월 전시 ‘시크릿 뮤지엄’, 11월 연극 ‘실종법칙 1’, 12월 마술 공연 ‘이은결, 더 일루전-마스터피스’ 등을 차례로 선보인다.

상영 장소는 중앙도서관 1층 중도라운지 강연



장으로, 사전 접수(신청순 50명)와 당일 현장 접수(50명)로 참여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상영일 2주 전부터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공예주간 ‘부안상감X부안감상’ 성황

2만6000여명 참여... 부안만의 공예관광 콘텐츠 자리매김

2025 공예주간 거점도시 부안의 ‘부안상감X부안감상’이 부안청자박물관과 부안 곳곳에서 펼쳐지며 열흘간 총 2만 6000여명이 참여하는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공예주간은 상감청자와 지역 공예문화의 매력을 대중과 공유하고 일상 속 공예 향유와 공예품의 판로 개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지역 공예작가들은 공예주간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관람객들은 전시와 체험을 통해 공예를 일상 속에서 즐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5 공예주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전통가마 소성 프로그램은 단연 가장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부안의 도예가들이 직접 참여해 장작가마에서 청자를 포함 다양한 도자기를 소성하는 과정을 공개했으며 이를 지켜본 관람객들은 불과 흙이 만들어내는 전통 도자 예술의 진면목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소성된 도자기는 경매 행사를 통해 관람객에게 선보였으며 총 12점 중 9점이 낙찰되며 관람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부안청자박물관 내에서 진행된 ‘청자카페’에서는 100여종의 청자 머그컵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컵을 선택하여 음료를 주문해 볼 수 있었다.



유물 중심의 무겁고 진지한 청자의 이미지를 벗어나 일상 속에서 머그컵으로 만나는 청자의 사용체험을 통해 청자의 대중화를 유도하였고 마음에 드는 청자 컵은 현장에서 바로 구매해 볼 수 있어 판매로까지 이어졌다.

또 지역 자원과 공예 콘텐츠를 결합한 ‘부안 미술관’은 지역 상점과 협력하여 공예상품을 기획·판매함으로써 공예와 관광이 결합된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다.

부안은 고려청자 생산지 중에서도 특히 ‘상감 기법’의 본고장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단순한 기물의 아름다움을 넘어 문양과 기법에 있어 높은 예술성과 기술적 정교함을 지닌 청자가 바로 부안 청자의 특징이다.

이번 공예주간은 전통 상감기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공예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통 계승과 현대적 활용이 공존하는 공예 콘텐츠의 가능성을 실현한 장이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활동가 ‘소리천사’ 모집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는 오는 6월 30일 오후 3시까지 자원활동가 ‘소리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리천사’는 소리축제가 원활하게 진행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축제를 돕는 자원활동가로서 축제장 곳곳에 배치돼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지원, 홍보 등 축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운영과 홍보 2개 팀에서 △프로그램 운영 △아티스트 지원 △백스테이지 △수송 △숙박 △무대 △객석 △운영본부 △주차 △환경 △기록 △홍보 및 매표소 운영 △티켓 등의 분야를 모집한다.

접수는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 내 ‘소리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7월 14일 오후 3시 소리천사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소리천사에게는 유니폼, ID 카드, 활동 물품 등이 제공되며, 식사 및 간식, 1395자 원봉사포털 봉사 시간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는 퇴근 버스 운행과 더불어 전북 외 거주자에게는 숙소도 제공된다.

또한 활동 종료 후에는 소리천사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축제의 여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섬진강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순창군 섬진강미술관이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소장품 기획전 ‘물로 그려낸 세계: 번지고, 스미고, 머물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수목, 수채, 담채 등 ‘물’을 매개로 한 동서양 회화 14점을 선보이며, 물의 흐름과 감성을 통해 인간의 사유와 정서를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시 제목인 ‘번지다, 스미다, 머물다’는 물이 닿은 자리에 남기는 감각과 흔적을 주제로, 회화의 물성이 감정을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관람객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순창=이양영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2024년 10월 시작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재단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과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 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과 전



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을 지목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더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